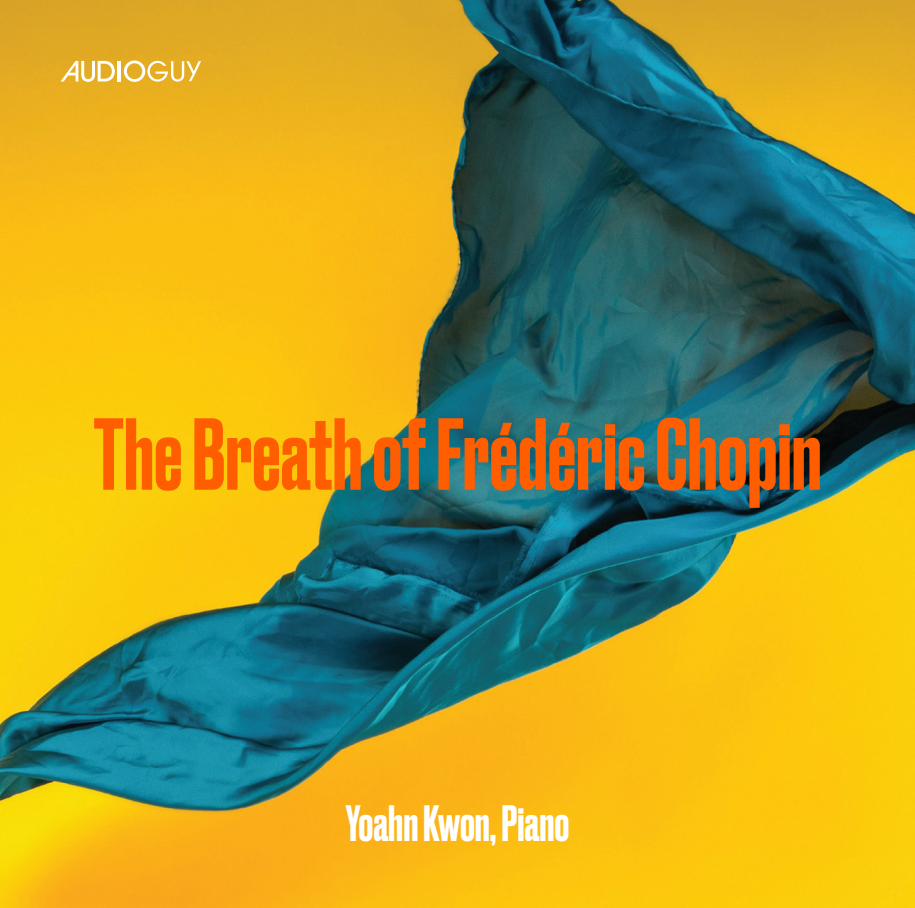


A flowing, translucent blue fabric, possibly silk or satin, is draped and billowing across the frame. It originates from the top right and flows towards the bottom left, creating a sense of movement and grace. The fabric's surface is highly reflective, showing highlights and shadows that emphasize its texture. The background is a solid, vibrant yellow, which provides a stark contrast to the cool blue of the fabric.

AUDIOGUY

The Breath of Frédéric Chopin

Yoahn Kwon, Piano

Producer 장정윤 Dr. JeongYoun Chang
Recording Engineer 최정훈 Jung-Hoon Choi
Recording Engineer 김용섭 Yong-Seob Kim
Piano Technician 이정규 Jung-Gyu Lee
A&R 박현숙 Hyun-Sook Park, 정한나 Hannah Jeong

Recorded and Mastered on March, 2019 at Audioguy Studio, Seoul
Piano: Bösendorfer 225-651 Serial number: 49882

Technical Information

Microphones: DPA4011, DPA4041
Microphone Preamplifiers: GML 8304, Merging Horus
DAWs: Merging Pyramix
Clock Generators: Mutec REF10, Mutec iClock
Recording Format: DXD
Speakers: Genelec 8351a
SANCTUS Signature MultiTap
Cardas Clear Reflection XLR Cable

THE BREATH OF FREDERIC CHOPIN

The unique album by pianist Yoahn Kwon to capture Chopin's inspiration and sound

쇼팽의 의도와 소리를 담기 위한 피아니스트 권요한의 특별한 앨범

Piano Sonata No. 3 in B Minor, Op. 58

1	Allegro Maestoso	09:16
2	Scherzo (Molto vivace)	03:03
3	Largo	09:27
4	Finale (Presto non tanto)	05:39

5	Nocturne No. 17 in B Major, Op. 62 No.1	07:28
---	---	-------

6	Mazurka in A Minor, Op. 67 No.4	03:19
---	---------------------------------	-------

7	Nocturne No. 20 in C-Sharp Minor, Op. Posth.	04:18
---	--	-------

8	Waltz No. 7 in C-Sharp Minor, Op. 64 No. 2	03:49
---	--	-------

9	Barcarolle in F-Sharp Major, Op. 60	09:05
---	-------------------------------------	-------

Total 55:41

19세기에 작곡가들과 연주자들에게 피아노는 가장 핵심적인 악기였다. 당시 피아노는 하나의 악기만으로도 오케스트라와 같은 웅장한 소리를 구현할 수 있었고 거듭되는 발전 속에서 확대된 음역과 다양한 효과로 섬세한 표현이 가능해져 작곡가들의 음악적 아이디어와 개인적 느낌까지 완벽하게 구현해 주는 최고의 악기였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쇼팽은 모든 음악을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채웠을 만큼 피아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쇼팽이 추구했던 다양한 음악적 표현과 아이디어 보다 대외적으로 알려졌던 그의 병약하고 슬픈 인생이 연주자들로 하여금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과 화성을 여성스럽고, 연약하고, 부드러운면서도 애절한 느낌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구실을 제공했다. 그래서 쉽게 귀를 사로잡는 대로 그의 음악은 본래 모습보다 훨씬 더 애정되고 과장되어 왔는지도 모른다.

쇼팽이 써 내려간 음 하나하나에 부여된 독립적인 울림과 잔향, 그리고 그 울림들의 조화와 음악적 구조에 집중해보면, 그의 음악은 담백하게 연주되었을 때 오히려 더욱 아름답다워진다. 쇼팽 음악의 정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소품들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지 않을까.

장정윤, 피아니스트, 음악학 박사

Piano, in the 19th century, is an essential instrument for both composers and pianists. Developing mechanism with the expansion of the range and different acoustics with new effects, piano as the single device was able to realize rich sounds like orchestra sound and delicate expression, which based on composers' ideas and feelings. As a composer and pianist, Chopin composed the whole of his works with piano, and it shows how much he was fell in love with this fantastic instrument.

Chopin's seemingly sad and ailing life made the performer play his music in a feminine, more fragile, and tender way, not from the variety of musical expressions and ideas that he sought. While his music is arising individual freedom of emotional boundary, those often distorted and exaggerated. However, Chopin's music must be beautiful under the strict musical structures because he sought to follow the classical tradition of J. S. Bach, W. A. Mozart, and L. v. Beethoven. How ironic?

While living in the Romantic era, Chopin did not lean on literature. That means he focused on one single note which has independent resonance and reverb, and on the harmony and musical structure which each notation makes. Therefore, his music is more beautiful when it is played as is and straightforward without any additional exaggerated emotion.

Dr. JeongYoun Chang
Piano performance B.M., M.M.
Musicology, PhD

1-4

피아노 소나타 3번 나단조, 작품 58 (1844)

Piano Sonata No. 3 in B Minor, Op. 58 (1844)

소나타 3번은 규모가 큰 곡이지만 소나타는 쇼팽이 주력한 장르가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소품 속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하게 시도와 음악적 요소들이 한데 모여있다. 총 4악장(Allegro Maestoso, Scherzo, Largo, Finale)을 통해 쇼팽은 피아니스트로서의 음악적 역량을 모두 담아냈는데, 대위법적이고 두터운 구조를 보이는 바흐의 전통에서부터 변화무쌍한 패시지들과 화성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보인다. 특히 음향적, 선율적, 구조적 변화들은 역동적이면서도 쇼팽 특유의 전조와 다양한 패시지를 통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지며, 이는 악장 간의 연결에서도 돋보인다. 또한 반복되는 선율에 왼손 반주의 리듬 분할과 변화는 4악장에서 클라이맥스로 치달는다.

Chopin wrote his Piano Sonata No. 3 in 1844, and it consists of all of his musical abilities in the four movements (Allegro Maestoso, Scherzo, Largo and Finale). The contrast between Bach's tradition of counterpoint and thick texture to his music leads to a dynamic and natural flow, which also stands out in the connection between the music and the instrument.

5

녹턴 제 17번, 나장조, 작품 62의 1 (1847)

Nocturne No. 17 in B Major, Op. 62 No. 1 (1847)

쇼팽 특유의 감성과 깊은 슬픔의 내면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엄격한 구조 속에서 보이는 선율과 화성은 쇼팽 최고의 작품들로 평가 받는 뱃노래 그리고 발라드 4번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결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This nocturne for the piano is a first of two under Opus 62, published in Leipzig Breitkopf & Härtel in 1847, dedicated to Mademoiselle R. de Könneritz. This nocturne is a masterpiece that can stand along with Barcarolle and 4th Ballade for its variety of harmony and structure being strict and yet free, allowing the right hand to sing at its best.

6

마주르카, 가단조, 작품 67의 4 (1846)

Mazurka in A Minor, Op. 67 No. 4 (1846)

쇼팽의 원숙함이 돋보이는 마지막 작품들 중 하나로, 간결하고 시적이며 세련된 감미로운 슬픔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쇼팽 사후 쇼팽의 제자이며 그의 작품들을 관리해주던 폰타나에 의해 1855년에 출판되었으며,

쇼팽 작품들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 베토래와 같은 시기에 쓰인 곡이다.

Written in one of Chopin's most mature period in 1846 along with his Barcarolle, the work published in 1855 by Fontana after Chopin's death in 1849.

7 **녹턴 제 20번, 올림다단조, 유작** **Nocturne No. 20 in C-Sharp Minor, Op. Posth**

유작 녹턴 중 하나로, 시작부분에서 곡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는 코드 진행으로 시작하며, 희망과 비통함을 오간다. 곡 중간에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을 담고 있는데, 1914년 출판된 Ernst Heuser의 개정판에 의하면, 1895년 판에서 쇼팽의 누이에게 헌정된 곡이라고 밝혀져 있다고 하며, 빠르기는 'Lento'로 되어있다.

One of his posthumous works, it starts with a chord progression that implicitly embodies the contents of the song at the beginning, and goes back and forth between hope and bitterness.

In the middle of the song, it contains elements reminiscent of Chopin Piano Concerto No. 2. Chopin dedicated this Nocturne to his sister in the edition published in 1895, and the tempo is 'Lento' according to Ernest Hauser, who published the revised publication in 1914.

8 **왈츠 제 7번, 올림다단조, 작품 64의 2 (1847)** **Waltz No. 7 in C-Sharp Minor, Op. 64 No. 2 (1847)**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자주 연주하는 쇼팽의 대표적 작품으로, 로스차일드 백작 부인에게 헌정되었다고 한다. 쇼팽의 스케치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One of the most frequently played Chopin's waltz in C# minor Op. 64 No.2 was composed in 1847 and dedicated to Madame La Baronne Nathaniel de Rothschild, a member of the prominent Rothschild banking family of France.

니체, 앙드레 지드 같은 철학자들이 가장 손꼽는 쇼팽의 음악적 최고의 걸작으로, 연주 곡으로 듣기는 좋으나 실제로 연주하기 매우 어려운 곡으로 꼽힌다. 연인 조르주 상드와 헤어지기 전, 마요르카 별장에서 쓰였으며,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는 듯한 분위기의 곡이다. 베네치아 곤돌라의 노래 위에 쇼팽이 사랑했던 벨리니의 벨칸토 스타일의 오페라적 선율이 그려지는데, 스페인의 정열이 느껴지는 쇼팽의 지인이자 소프라노인 폴린 비아르도의 성악적 영향과, 지중해 여름 바다 빛깔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마요르카 섬의 미학이 합쳐져 인간이 그려낼 수 있는 최상의 피아노곡이 탄생되었다. 이후 라벨, 드뷔시 그리고 스크리아빈 등이 벳노래에 특별한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작품들을 쓰기도 했다.

Bellini's Bel Canto style inspired Chopin. The Barcarolle is one of Chopin's very best masterpieces, often regarded as one the most exceptional work for piano literature, which was written in 1845 when Chopin visited Georges Sands' summer house in Nohant.

Although it sounds pleasant, this work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ntricate and challenging tasks in piano literature, praised by many artists, musicians, and philosophers such as Debussy, Ravel, Scriabin, Nietzsche, and Gide.



쇼팽 음악의 이해가 높았던 시인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는 1843년 당시 리스트로 대표되는 당시의 낭만주의 피아노 연주 스타일에 대해 기계의 발전과 메커니즘이 예술의 본질인 표현을 자동으로 해결해준다고 자주 무대에 서지 않고 소리를 정성 들어 한음 한음 섬세하게 연주했던 쇼팽의 연주를 그리워했다.

쇼팽 평생 동안 함께한 플레이엘(Pleyel) 피아노는 제조할 때 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색채와 화성적 배음의 과정을 그리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다고 하며, 쇼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피아노의 질감 그리고 섬세한 수공예품 같았던 쇼팽의 연주를 하이네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은 진정한 예술이라고 믿었다. 쇼팽의 실제 실용 연주를 들은 사람들은 섬세하고 만들어가는 음악적 과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느꼈으며, 쇼팽 본인 연주 자체가 ‘과도함’ ‘팽창’ ‘극적인 대조’와는 거리가 먼 고급진 소리와 스며드는 뉘앙스 그리고 간결한 노래 같은 느낌이었다고 한다. 플레이엘 피아노의 특징은 spruce 나무의 울림을 담은 것인데, 공교롭게도 오늘날 spruce를 재료로 하는 Bösendorfer가 유일하다.

피아노 녹음의 공식처럼 되어 진, 큰 홀 그리고 Steinway 피아노 소리가 아닌, 좀 더 특별한 소리를 담기 위하여 전문 공연장은 아니지만, 마치 쇼팽의 살롱과 매우 흡사하다고 느껴진 아담한 사이즈의 Audioguy Studio에서 Bösendorfer 피아노로 작업하며 최대한 쇼팽이 추구했던 피아노 연주의 의도를 담고자 하였다.

권요안, 피아노

In 1843, Heine, the romantic poet, was nostalgic about Chopin's piano playing after the flourish of virtuoso pianists performing with passionate mannerism.

Franz Liszt started to play in front of large audiences in Opera houses, and therefore piano playing has become more extroverted.

Piano manufacturers were also developing an innovative mechanism which helps pianists to play faster and louder to serve a large crowd. In spite of pianists play recitals in big Opera houses at the time, Chopin only preferred playing in small salons. Listeners who had chance to hear Chopin's salon concert felt unforgettable sensitivity and precious individual sound Chopin produced on the Pleyel piano.

With Steinway's patents and its contribution of development to the piano mechanism, pianists are able to produce sound much easier and play better technically. AUDIOGUY studio in Seoul with Bösendorfer 225 indeed was the ideal place to recreate Chopin's salon atmosphere.

Yoahn Kwon, Piano

섬세한 터치와 학구적인 음악 해석으로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권요안은 미국 줄리아드 음대 예비학교를 거쳐 메네스 음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프랑스 파리 에콜 노르말 코르토 음악원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Anne Queffelec을 사사하며 **Stages de Perfectionnement** 과정을 4년간 수학하였다. 미국 링컨센터 실내악 콩쿠르 우승을 통해 전문 연주자로 발돋움한 그는 뉴욕 필하모닉,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시카고 심포니,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주요 멤버들과 다양한 레퍼토리로 실내악 연주, 카네기홀, 링컨센터등 뉴욕의 다수의 주요 공연장에서 독주 및 앙상블 연주를 하였다.

저명한 음악평론가인 해리스 골드슈미스는 그를 '섬세함과 깊은 음악성으로 청중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게 만드는 주목해야 할 피아니스트'라고 평한바 있으며, 이 외에도 뉴욕 타임스, 뉴욕 콘서트 리뷰, 뉴요커, 시카고 트리뷴과 같은 글자의 해외 언론의 까다로운 비평가들로부터 좋은 비평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세계적 연주자들과 함께 시카고 **WFMT**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시리즈 음반에 소개되었으며, 최근 예술의전당 **IBK** 홀을 비롯한 서울의 주요 공연장에서 독주를 비롯, 미국 과 유럽에서 실내악, 오케스트라 협연 등으로 활발히 연주 활동 중에 있다.



Pianist John Kwon, a native of South Korea, has won extraordinary critical acclaim for his deep musicianship, sensitivity, and rare insight. Renowned critic Harris Goldsmith called him a 'versatile and interesting musician who keeps audiences' attention from beginning to end.'

Mr. Kwon started piano studies at the age of nine. He attended at the Pre-College Division of The Juilliard School. After graduating from the LaGuardia High School of Music and Arts, Mr. Kwon received hi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 from the Mannes College of Music.

At Mannes, he studied piano with Diane Walsh, theory and analysis with Carl Schachter with a generous scholarship award from the Jerry Seinfeld Family Foundation.

Furthermore, Mr. Kwon completed the Stages du Perfectionnement at France's L'Ecole Normale de Musiques de Paris, studying with Anne Queffelec for 4 consecutive years.

He studied and mentored by pianist Jacob Krichaf (who was a student of Claudio Arrau) in New York during his formative years. And later frequently taught by great pianists and Pedagogues such as Anton Kuerti, Jacques Rouvier, and John O'Connor at the Wilhelm Kempff's Positano Beethoven Master Kurs in Italy, Banff Centre and Orford Academy in Canada.

With the essential interpretation based on his unique touch and painstaking musical analysis, he is warmly welcomed by audiences and critics on important concert venues in the world.

Recitals, concerto appearances and his chamber music performances with members of the New York Philharmonic, Metropolitan Opera, Chicago Symphony, and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won critical acclaim.

He has recorded several CDs for Audioguy, WFMT Chicago, and SONY Classical label.

Alongside his ongoing critically acclaimed concerts, Mr. Kwon's teaching is highly in demand by prospective students from East Asia. His recent private students successfully got accepted to many great conservatories and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such as Manhattan School of Music, Peabody Institut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s Thornton School of Music, Ecole Normale de Music de Paris, HMDK Stuttgart, Hochschule für Musik Hanns Eisler Berlin.

